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부활절 메시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평화의 왕

예수의 부활은 인류역사의 방향만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실의와 좌절 그리고 허탈감에 빠졌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집단적 공포증에서 해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환희와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 그들이 이같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포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는 무수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채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실직, 실연, 건강악화, 사업에 대한 불안 등 악조건이 사라지기 전에는 나에게 참 평안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보장이 없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임시적이고 상대적이며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화평의 왕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리스도께서 양심의 살름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항구적인 화목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허리가 잘리운지 반세기가 넘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민족적인 평화가 없다. 계층간의 갈등과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간의 긴장은 지금도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수준 높은 지도자와 덕

실의와 좌절

그리고 허탈감에 빠졌던 제자들이
공포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된 것은
공포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화평의 왕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망있는 모사들의 지략도 동원되어 보았지만 아직도 이땅에서는 진정한 화평은 찾을 수가 없다.

화평케 하시는 이는 오직 화평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화평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화평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3일(수) I, II부 예배 시에는 4월 학습·세례식을 거행하였다.



부활절 예배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부활절 헌금과 금식헌금은 헌금시간에

새벽 5시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는 오늘 I, II, III부 예배를 부활절 예배로 드린다. 부활절 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의 감격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헌금시간에는 부활절 감사헌금과 고난주간 동안 절제하여 모은 금식헌금을 함께 드리도록 한다. 금식헌금은 고난 주간엔 금식과 절제를 통해 모은 금액을 복한수재민을 돕는 데에 사용하기로 했다. 복년 땅에도 부활 찬송이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활절 찬양예배

오후 5시, 할렐루야찬양대 주관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찬양

오늘 저녁 5시에는 할렐루야찬양대(대장: 김광신 장로, 지휘: 박정선 집사, 오르간: 조은주 집사, 피아노: 정은영 집사)가 주관하여 부활절 찬양예배를 드린다.

오르간 독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스테이너 곡),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헨델 곡), 갈보리의 십자가(발트 곡), 주 달려 죽은 십자가(그레고리안 성가), 안식일이 지나고(홀튼 곡), 주가 부활하셨네(물러 곡), 할렐루야(윌슨 곡) 등 오늘 찬양예배 시에 연주되는 곡 속에는 공생애부터 부활하기까지의 예수님의 발자취와 교훈이 담겨 있다.

1996 부활절

예수 부활하셔서 길

1996년도 부활절 한국교회 남·북 공동기도문

부활의 새 아침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

죄악과 죽음의 어둠 밤을 지나게 하시고

새 아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단의 비극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침의 나라 사람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해 돋는 땅에서 오순도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반세기는

전쟁과 분열, 불의와 억압, 고난과 탄식의 세월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이며 형제 자매이지만 서로를 잘 모른 채로 살아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서로를 그리워하게 하시며

하나될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위의 죽음의 세력들은 우리 민족을 무덤 안에 가두어 놓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시작되는 새 역사와 새 창조를 만개 하셨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이 어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새아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이 통일된 나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의 나라, 사랑과 정의의 새 나라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른 새벽,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여인들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되는 부활의 아침에

새 옷 입고 춤출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산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평양에서,

백두산에서 한라산에서,

지구상에 흩어져 사는 온 민족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하나되는 부활의 새 아침을 속히 앞당기시옵소서.

부활의 종소리가 온 땅에 크게 울려 퍼지는 이 날,

우리 모두 부활절의 사람들로

생명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만방에 외치고

민족 부활의 희망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산 소망

우선자(권사, 11교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 17절)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신 어떤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기
억납니다.

그 목사님은 한쪽 다리를 절단하여 고무다리를 하시고 국내 뿐 아
니라 해외에까지 부흥집회를 다니시느라 무척 몸이 힘드셨던 분입
니다. 그런데 하루는 튼튼한 두 다리로 막 달리며 꿈을 꾸면서 '날아
갈듯한 기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며 기뻐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목사님께서서는 그것으
로 인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모
자란다고 생각되고, 일그러지고 상처 입은 것이 신령하며 온전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하여 새 힘이 막
솟아나더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어딘가 부족하고 일그러졌다고 생각하던 모
습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정과 욕을 못박은 우리는 부활하시
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영
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터이니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어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
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부활절 아침, 벅찬 감격으로 우리도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새 하늘
과 새 땅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
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 순례자 컬럼 ✧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가?”

인생 칠십이면 장수로 보던 시대와는 달리 요즈음엔 고회를 즐
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이천 년을 살
고있는 이는 지상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죽은 예수
님을 예배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살아계신 인격이 아닌
죽은 자의 교훈과 유덕이나 섬기는 것이라면 다른 종교나 이데올
로기를 따르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인간의 죄를 위한 희
생제물이 되셨으며, 시호만에 부활하시고 사십일만에 승천하셨다.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을 받으
시고 인간을 비롯하여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신다. 예수는 자기 백
성의 갈 곳을 준비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화해자로서 중보
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다시 오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다스리시네

부활신앙 · 부활사건

김명현(목사, 고등부 지도)

겨울이 죽음의 상징이라면 봄은 생명의 상징! 겨울은 자연계의 생명을 온통 지하에 가두는 무덤의 역할을 하지만 봄은 땅에 갇힌 생명들을 다시 불러 일으켜 마치 굳게 닫힌 무덤의 돌문을 열듯 새롭게 소생하게 한다. 그러하기에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된 일인것 같다.

서구 사람들은 달걀을 통하여 부활절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새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날로기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요즘 나누어 갖는 '꼭 - 삶은 달걀'에서는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삶은 것보다 생달걀을, 날계란 가운데서도 무정란이 아닌 유정란을 나누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상당히 권장할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 있어서 생명력 넘치는 '부활의 신앙'을 강조한다. 무덤이 체념이나 절망의 상징이라면 부활은 희망과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체념의 자리에서 소생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앉은뱅이가 자기의 운명의 굴레를 벗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를 얽매고 있는 온갖 어둠의 세력, 죽음의 굴레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체험할 때 우리는 부활신앙의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부활신앙!' 이제는 그 '부활신앙'을 통하여 우리 삶에 '부활사건'이 나타나도록 힘써야겠다.

초대의 글

진실을 들어 보십시오

김광신(장로, 할렐루야찬양대 대장)

최고의 거짓말은 진실을 허위라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두운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도 사실이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절규에 가깝도록 외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밤 할렐루야 찬양대의 합창으로 성도들의 증언 하에 증언되고 증명될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자가 복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의 진실 증언을 들으며 경건한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감격을 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절 찬양예배: 4월 7일 오후 5시

■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④ - 참가국 ①

호주



■ 면적 - 7,682,000Km²

■ 인구 - 17,690,000명(1990년도 현재)

■ 공용어 - 영어

■ 수도 - 캔버라

■ 주요도시 -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베인, 아델라이드

■ 경제 - 공업, 농업, 광업이 근간인 복합체제로 부유하나 세계 경기가 후퇴하면서 거대한 외채를 갖게 됨.

■ 정치 - 1901년 영국에서 독립한 의회 민주주의. 6개 주와 2개의 준주로 연방구성.

■ 종교 - 종교의 자유가 있는 종교분리주의 국가. 빅토리아 주 의회가 고려하고 있는 법안은 다른 종교인들에게 전도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조를 비난하는 문서를 소유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70.6%(그 중 개신교는 36.6%).

■ 선교사 -

호주 사역 선교사 - 67개 단체의 3,543명 (1:1,436 개신교인)

호주 파송 선교사 - 79개 단체의 726 (1:23,100명)

■ 호주를 위한 기도 -

① 호주인에게는 세속주의가 팽배해 있다. - 부유함, 여가, 쾌락에 대한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 경제가 불황에 빠졌으며 실업율도 상당히 높다. 그들의 권위, 전통, 열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과 교회가 신뢰할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기 어렵게 되었다. 많은 호주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자.

② 교회 출석율이 저하되고 있다.(1990년 통계 12%) - 이런 현상은 전통있는 큰 교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복음주의 교단의 경우, 약간의 성장이 있고 특히 여러 오순절과 카리스마틱 교회와 집단에서 그러하다. 모든 복음주의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③ 청소년 복음화가 시급하다. - 몇몇 주요 교회에 다수의 복음주의 교인이 있는 반면 나머지 교회에는 활동적이고 중요한 소수의 교인이 있다. 주일학교 출석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복음전도사역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자. 또한 교인들이 선교와 복음화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기도하자.

④ 선교에 대한 비전이 줄었다. - 일인 당 선교사역 후원액이 선진국 중 최저이다. 그 결과 많은 호주 선교사들이 후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신학훈련을 받는 목사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통해 개교회가 다시 활기를 찾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사역자 특히 미개척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자.

교회학교의 부활절 행사

- 유년부** - 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찬양 - "기적이 일어났어요"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갖는다.
- 중등부** -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대신 했던 구레네 시몬의 눈을 통해 본 부활의 사건을 극화한 성극 '구레네 시몬'을 공연한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관계로 오늘 집회를 갖지 않는 중등부는 다음 주일 집회 시간에 이 성극을 공연하게 된다.
- 고등부** - 고등부도 다음 주일 집회 시간에 성극 '2000년 전...'을 공연한다.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을 배경으로 펼쳐질 이 성극을 통해 관객들은 '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 대학부** - 조별로 준비한 찬양을 발표하면서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조별로 준비한 장식 달걀을 다른 형제자매와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 헌신예배를 드리는 대학부는 이번 주 내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청년부** -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청년선교회에 장식 달걀을 선물하고, 이국 땅에서 외롭게 부활절을 맞는 이들을 위로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청년부 집회시간에는 부활절 퀴즈, 달걀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부활절 파티도 가질 예정이다.



우리도 베풀 한 장

- * 꽃샘추위 속에서도 기도의 열기와 말씀의 은혜가 넘쳤던 2교구 대심방. 심방을 받는 가정마다 특별감사헌금을 준비하여 바쳤다고 한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드려진 이 헌금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아름답게, 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기를 기원하는 2교구 가족들의 마음이었다.

목회자 동경

- * 이종운 목사는 8일(월) 저녁 서울 YMCA 이사 및 임원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11일(목)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재위원회와 성경주석 집필자 모임을 갖고 12일(금)에는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석한다.
- * 이만열 전도사(청년부 지도)의 수기 '한 시골뜨기가 눈뜨가는 이야기'가 도서출판 두레시대에서 출판되었다. 암울했던 시대에 대학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방황하던 이야기를 비롯한 자전적 이야기를 엮은 것으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 김영한 목사(장년부 지도)는 지난 주 '한국개혁신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감사하자.
3. 북한에도 부활찬송이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2. 선거를 통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4.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길동무

선거와 하나님 나라

- * 오는 11일 총선에 기권하지 말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
- * 상대방가를 잘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좀더 나은 후보를 찾는 일에 관심과 시간을 보내자.
- * 무엇보다도 나라를 알릴 수 있는 믿음직한 일꾼들이 뽑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칼빈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다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국가의 기원을 설명했다. 즉 정부의 권위는 인간에 의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믿는다. 정치도 예외일 수 없다.

이번 주에 우리는 총선을 치르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란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와 통일이 추진되는 구체적 과정인 선거에 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시민된 우리들은 '공평과 정직'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참여해야 한다.

청교도들은 선거 전에 꼭 선거설교를 하였다고 한다. 그들이 선거 설교의 주제로 다루었던 것은 '선한 통치자의 자질'이었는데 그것은 '지혜, 경건, 그리고 정의'였다고 한다. 그들은 좋은 통치자란 하나님 앞에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도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사람들이 많이 선출되어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자.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활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과 정직이 우리 안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날마다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④ 4월 15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목회자의 가정생활과 교회성장(정동섭 박사)
- ⑤ 4월 22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현대교회와 의료윤리(맹용길 박사)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U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금요기도회	II부 오후 7시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